

치과기보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News

 대한치과기공사협회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월간 무료 배포

제504호 2026.1 발행

창간 1977년 11월 20일 | 발행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지현
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30길 19 | 대표전화 02-2253-2800
팩스 02-2253-2809 | 이메일 kdta@kdtech.or.kr | 사이트 www.kdtech.or.kr



2026 HAPPY NEW YEAR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술과 돌봄이 통합되는 사회,
함께하는 치과기공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업무협약 관련
협회원(사) 혜택 안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신한카드 간의 업무협약으로
1월 26일(월)부터 협회 **회원증 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회원증 카드로 발급될 카드는
협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1. 온라인 보수교육 무이자 12개월

혜택 2. 종합 학술대회 10% 할인
(전월 실적 최소 20만원 이상)

혜택 3. 신규 및 기존고객 중 6개월 이상
신한카드 미사용자 3만캐시 지급

그외 다양한 가맹점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상품 카드 발급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발급 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문자 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26년 신년 하례식

“적토마 기운, 회원 권익 향상 최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치과 기공계 내빈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다.

지난 1월 5일(월)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 신년 하례식’에서는 병오년(丙午年)새해를 맞아 치과기공계의 희망찬 도약을 다짐했다.

김정민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며 치과기공사 직종의 주요 현안을 적극 전달하고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넓히기 위해 힘써온 제29대 집행부는 올해는 첫째, 치과기공사 전문성과 권익을 강화할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보수교육 제도의 질을 높이며 면허관리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셋째, 대국민 홍보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여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협회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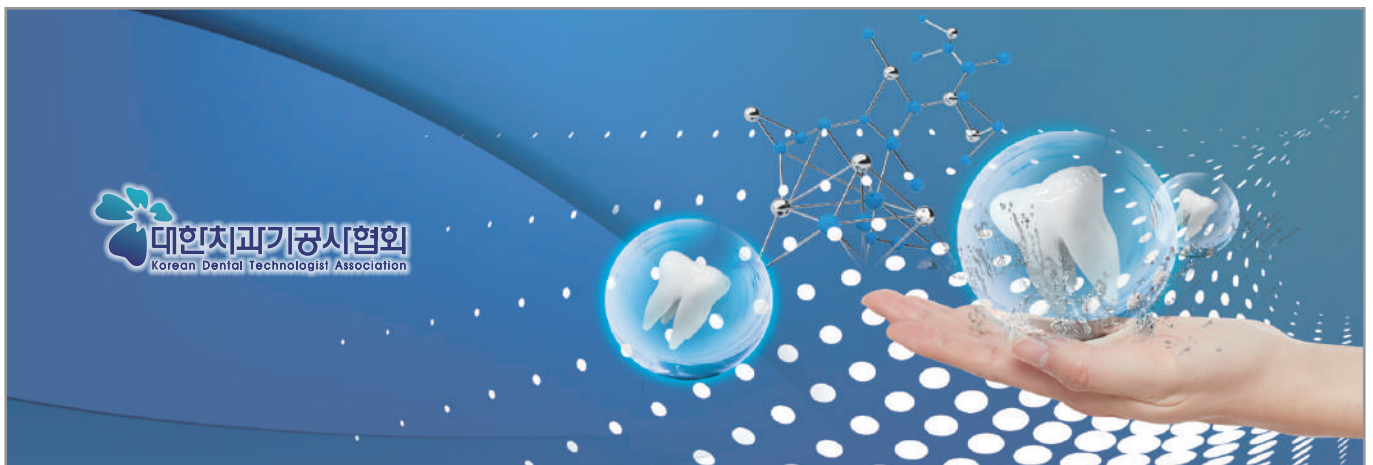


김정민 협회장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신년 덕담을 통해 제29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치과기공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떡 케이크 커팅식과 윤남기 제11·12대 협회장의 건배 제의와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하였다.

이날 신년 하례식에는 윤남기 제11·12대 협회장, 김영곤 제21·22대 협회장, 송준관 제23대 협회장, 김춘길 제25대 협회장, 주희중 명예회장, 김희운 대의원총회 부의장, 최정필 수석감사, 송영주 서울회장, 유진호 정책연구소 소장, 석일현 제9대 대한기공학회 회장, 이수연 대한여성회 제3·4대 회장, 유재운 서울경영자회 회장, 박정일 서울경영자회 신임 회장, 하대중 서울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AI 직업능력 개발



김웅철

- 논설주간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학장
- 자랑스러운 연세보건인상
- 세계인명대사전 마르퀴즈후즈후 등재 및 평생업적상
- 치과캐드캠 분야 SCI(국제전문학술논문) 5년 누계 세계 1위
- JPD, JPR (치과보철논문 영향력 세계 1, 2위) 논문심사위원
- 일본보철치과학회 최고논문상(JPR Best Paper Award)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약 5,200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도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직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건설이나 제조업과 같은 현장 인력의 부족 사태는 지속되고 있고, 소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직업군의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니 2030세대에서는 노동보다는 그냥 쉬고 있는 근로 대상자가 16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한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산업 전반에 있어서 AI 전환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AI는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산업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까?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상반기 중소기업 1,013개 가운데 AI 훈련 경험이 있는 기업은 20% 정도이다. 그리고 영세 기업일수록 그 비율은 낮다. 아마 우리 치기공은 이보다 더욱 낮을 것이다. 아마도 전무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기업들은 AI를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단순 검색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AI를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어떻게 높일 지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AI에 대한 수요 발굴과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구직자는 물론이고 재직 및 은퇴를 앞둔 중장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에게는 기초부터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단계별 지원을 한다. 훈련 전반에 걸쳐 AI 기초를 익히고 직장별 특화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한다. 고급 인력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치기공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육 후에는 취업과 창업도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훈련 수요자에게는 스타트업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80개 기업에 기업당 2억의 비용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재직자 교육은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정부가 희망 기업을 발굴하여 진단하고 AI 전환 수준에 맞는 훈련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고 한다. 나아가 지역 거점 수요자를 이어주는 AI 훈련 고속도로도 간다고 한다. 내년에 지역에 공장형 AI 실습장 4곳을 조성하여 기업과 대학생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을 AI 직업 개발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치과 기공도 이러한 정부 사업과 지원을 적극 이용하고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의 타성에 벗어나 정부의 사업과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의 AI 기공은 세계를 이끌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AI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 흐름이 시작되는 단계인 지금 협회이건 개인이건 빨리 올라타는 게 현명하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대한치과의사협회

함께 만드는 치과의료의 밝은 미래

존경하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마무리되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강렬한 에너지와 속도, 자율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취적인 기운을 듬뿍 받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만여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러한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치과의료 현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치과기공, CAD/CAM, 3D 프린팅, 인공지능 기반 설계 등 진료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본격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의 긴밀한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적극적인 상생과 협력을 통해 치과 의료발전과 기공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하며 의료현장의 동반자로서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치과의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계 가족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 2026년 병오년 을 한 해 새로운 도약과 성취의 해가 되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 2026년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치과기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박정란입니다. 역동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맑은 강인한 생명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해왔습니다. 힘차게 대지를 달

리는 말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치과기공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활력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향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과 '방문구강관리서비스'는 치과계 전반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과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가 굳건한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양 직역이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며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연대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치과계의 미래 역시 한층 더 굳건히 다져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출발하는 2026년 병오년이, 양 직역이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모 회장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안제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김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치과계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도 각 단체와 구성원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기공사는 양질의 치과기공품을 제작하여 치과의사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적의 기공품 제작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치과기공사 여러분의 헌신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은 물론 치과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과의료기기산업 역시 치과기공사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제품을 접하고 사용하시는 1차 사용자라는 점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또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개발·공급하여 현장에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과기공사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고, 국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치과계 발전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서둘러야... 3월 행정처분 예정”

보건복지부, 의견 제출 2월 6일(금) 까지

미신고자 면허효력정지 예고에 치기협 신고 독려 나서...

상반기중 면허신고 실태조사 미제출 치과기공소 조사원 방문 계획

보건복지부가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 14,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한 가운데 치기협 이 신고 독려에 나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및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

의견제출서는 2025년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미신고자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견서는 2월 6일(금)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월로 예정돼 있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제도는 2015년에 첫 시행됐으며, 2019년 치과기공사 직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 2026년 두 번째 면허효력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것이다.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허정지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또는 3회 이상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는 면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치과기공소 대표자께서는 근로자의 면허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원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치과기공사 귀하
(경유)

제목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 제3항(자격의 정지)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나, '25.10.21. 기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부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4. 면허효력정지란 면허신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며,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신고를 완료할 경우 그 효력이 회복됨을 안내드립니다.

5. 사전통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2.6.(금)까지 의견제출서 양식을 참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	문의처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절차 안내 ○ 보수교육 이수현황 조회 ○ 보수교육 면제대상 확인 ○ 보수교육 관련 증명서류 안내 ○ 면허신고서 작성 안내 ○ 면허신고 실태 조회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 대표번호(콜센터) : 02-2253-2800 ○ 팩스번호 : 02-2253-2809 ○ 홈페이지 : www.kdtech.or.kr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치과기공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	{{성명}}	직종	치과기공사
	생년월일	{{생년월일}}	면허번호	제{{면허번호}}호
	주소	{{발송주소}}		
처분내용(예정)	면허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정지* ('26.3월 예정)			
	*면허효력정지: 면허신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신고 완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 효력 회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함			
법적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제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제출기한	2026.2.6.(금)까지
	전자우편	yunji0111@korea.kr	팩스	044-202-3925
	등기우편	(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문의처 안내 >

문의 내용	문의처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절차 안내 ○ 보수교육 이수현황 조회 ○ 보수교육 면제대상 확인 ○ 보수교육 관련 증명서류 안내 ○ 면허신고서 작성 안내 ○ 면허신고 실태 조회	<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 ○ 대표번호 : 02-2253-2800 ○ 팩스번호 : 02-2253-2809 ○ 홈페이지 : www.kdtech.or.kr

보건복지부장관(관인생략)

실제로 최근 면허 효력정지 상태의 치과기공사를 고용한 사례로 인해, 해당 치과기공소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아울러 (사)대한치과의사협회에도 치과기공사를 고용 중인 치과 병·의원 대표자께서는 근로자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안내 및

홍보를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한편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2025년 11월 17일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실태조사 현황표 미제출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첫 조차 방문 조사에 나선데 이어, 2026년 3월말~5월초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기자 장수경

의견제출서			
1. 처분예정 제목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성명		직종	
주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제 호
2. 당사자	현재근무기관명, 주소		
	등기우편 수령가능주소		
3. 의견제출	○ 본 의견제출서는 2025년 10월 이전에 의료법에 따라 면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자가 된 경우 등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25년 10월 이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 통지 안내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시면 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연락 가능한 연락처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 면허효력정지 : 면허신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 (면허효력정지를 받더라도 면허신고 시, 별도 절차없이 효력이 회복됩니다)			

< 권리구제 안내 >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제 안내



치과기공사는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고대상** 2023년 신규면허취득자, 2023년도 면허신고자, 2023.12. 31. 이전 면허발급자 중 미면허신고자
- 신고요건** 2025년도 이전 모든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내역
- 신고방법** 면허신고센터 접속 후 면허신고

*** 면허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별개입니다.**



이사회 소식

제2025-12차 정기이사회(2025.12.12.)

▶ 제1호 의안: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의 건

3월 21일(토) 오송 OSCO에서 개최되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준비사항(안)을 참조하여 각 위원회별로 총회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의안: 면허 실태조사원 경비 지급의 건(서울회, 대전회)

면허신고 실태조사 미제출 치과기공소에 대한 조사원 방문 경비를 지급기로 함.

▶ 제3호 의안: 회관관리기금 재예치의 건

회관관리기금을 재예치하기로 함.

▶ 제4호 의안: 권리복권·정지·회비면제의 건

권리복권(44명)·권리정지(27명)·회비면제(5명)을 상신함.

▶ 기타의 건

1) 협회 홈페이지 제작 건적의 건

협회 홈페이지 제작 건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보고함.

2) ○○회 수사 의뢰의 건

○○회가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수사 의뢰하는 안을 검토함.

3) 법률 변호사 계약의 건

법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협회 법률 변호사로 계약하기로 함.

의기총 대표회장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의기총은 지난 1월 8일(목) 개최된 제1차 정기회의를 겸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치기협 김정민 협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나다순) 등 보건의료기사 8개 단체로 구성돼, 보건의료기사의

권익 보호와 공동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2026년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수가

금속상 완전틀니 1,590,300원

부분틀니 1,668,540원

레진상 완전틀니 1,371,480원

임플란트 1,351,04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6년도 의·치과 수가 파일을 발표했다. 올해 치과 수가는 기존 대비 2% 인상,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다.

먼저 주요 항목인 급여 임플란트와 틀니를 살펴보면,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135만1040원으로 지난해 132만4320원보다 2만6720원 올랐다.

단계별로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13만5100원 ▲2단계(고정체-본체-식립술) 58만950원 ▲3단계(보철수복) 63만4990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금은 40만5100원이다.

이어 치과병원의 수가는 140만9790원이며 단계별로는 ▲1단계 14만980원 ▲2단계 60만6210원 ▲3단계 66만2600원이다.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2만2700원이다.

'부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66만854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50만200원이다. 이어 치과병원은 174만108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52만1900원이다.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37만148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1만1200원이다. 치과병원은 143만112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2만9200원이다.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59만30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7만6900원이다. 치과병원은 165만944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9만7600원이다.

이어 '임시 완전틀니(1악당)'은 ▲치과의원 30만9350원 ▲치과병원 32만2800원이다. 또 '임시 레진상부분틀니(3치기준)'는 ▲치과의원 8만1920원 ▲치과병원 8만5480원이며, 여기에 '추가1치당'은 치과병·의원 모두 7880원이다.

이밖에 단계별 수가 및 환자 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심평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2024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의료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116조652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치과 진료비는 전년보다 7% 가량 확대된 6조2037억 원으로 집계되며 6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2026년 건강보험 치과노인틀니·임플란트 진료비(치과의원 기준)

구분	단계	총 진료비
노인 금속상 완전틀니	1. 진단 및 치료계획	205,730
	2. 인상채득	430,390
	3. 악간관계채득	337,010
	4. 납의치시적	274,300
	5. 의치장착 및 조정	342,870
	합 계	1,590,300
	금속임시틀니	309,350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1. 진단 및 치료계획	205,720
	2. 인상채득	342,870
	3. 악간관계채득	205,720
	4. 납의치시적	274,300
	5. 의치장착 및 조정	342,870
	합 계	1,371,480
	레진임시틀니	309,350
노인 부분틀니	1. 진단 및 치료계획	204,900
	2.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231,260
	3. 금속구조물 시적	492,220
	4. 최종 악간관계채득	141,990
	5. 납의치 시적	140,490
	6. 의치장착 및 조정	457,680
	합 계	1,668,540
	임시 부분틀니(3치 기준)	81,920
	임시 부분틀니(추가 1치)	7,880
치과 임플란트	1. 진단 및 치료계획	135,100
	2. 고정체(본체) 식립	580,950
	3. 보철수복PFM	634,990
	합 계	1,351,040
	(2) 고정체 식립 재시술	290,480

※ 임플란트재료대: 2단계- Fixture 비포함, 3단계- Abutment 비포함

임플란트 진료비 = 행위료 총진료비 + 고정체 + 지대주

※ 임플란트 진료비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고정체 / 지대주의 실구입가(최대 상한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체 상한금액 57,410원 ~ 185,040원 / 지대주 상한금액 20,800원 ~ 54,590원

(2) 고정체 식립 재시술은 2단계 실패로 시술 중지 및 재등록 후에만 가능하며, 3단계 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재식립시 고정체 재료대 별도 산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40년 의사 수 '1만1136명' 부족

2027년 한의사, 간호사

2028년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2029년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인력 논의

오는 2035년에는 필요한 의사 인력이 최소 1500여 명에서 최대 4900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000여 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추계 방법은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제1차 회의가 개최돼 위원회 운영계획,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한의사, 간호사 ▲2028년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2029년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등 순으로 순차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동우교합기1”



유엔아이치과기공소

네트워크 가입 및 교합기 구입 문의 043-218-2804

1

Plate를 이용하여 회전축에서 상악 중절치 절치점까지의 거리를 90~100mm에 맞추어 고무찰흙으로 Plate에 고정하고 상악을 먼저 mounting한다.

2

구강에서 Occlusal Plane meter를 이용 동공선과 평행하고 Camper Plane과 평행한 교합평면을 얻어 Plate에 고정후 상악을 먼저 mounting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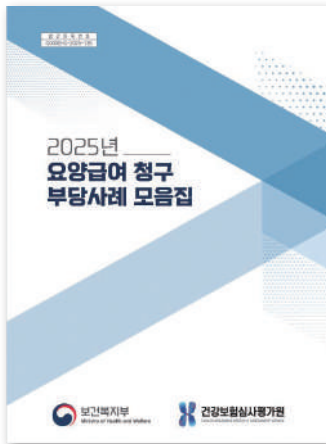
3

Hip평면 Jig를 양쪽 hamular notch와 incisive papilla에 고정 회전축에서 전방으로 100mm Border에서 Plate까지 약22mm 높이에 맞춰 상악을 먼저 Mounting한다.
(※ incisive papilla 후방사작점부터 12mm전방에 중절치 순면이 위치한다.)

교합기 특허 제 10-1472808 호

“비급여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 수복 급여로 부당 청구”

보건복지부 심평원,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지적됐으며 특히 처치 및 수술료 거짓 청구 사례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발치 수진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 재료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의 경우다.

산정기준 위반에서도 다수 적발 사례가 나왔다. 특히 해당 항목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사례가 주를 이뤘다. 비급여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실시하고 급여 임플란트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면 피개의치(Overdenture)를 실시한 뒤 급여 임플란트 부분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무자격자 시행 부당 청구도 적발 사례에 올랐다. 치위생학과 졸업 후 면허 취득 전인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를 실시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사례집에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찰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과다 징수 △치료재료대 부당 징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부당·거짓 청구 기관으로 적발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 고발과 명단 공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사례집은 ‘심평원 홈페이지-의료정보-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Build UP

전문기공소 [빌트치과기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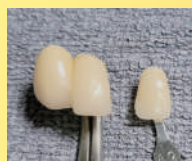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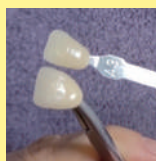
심미보철이 점점 요구되는 시대에 완성도 높은
porcelain을 제작하시는데 멋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포세린메탈, 지르코니아 Build up.
통지르코니아 stain, Glazing 가능



염미옥

고대병설보건대학 졸업
단국대 구강보건학 석사 졸업
2015년 서울특별시, 강원도 연합학술대회 연자
임상경력 20년 / 현. 빌트치과기공소 소장



빌드업 전문 기공소

★ 2주 과정, 한달 과정 1:1 세미나 ★

- ★ 다색 축성, 효율적으로 shade를 낼 수 있는 방법
- ★ 2~3가지 종류의 다른 powder를 배울 수 있는 기회!
- ★ 1:1이라 내용은 각 개인의 수준에 맞춰 한단계 UP시키고, 초기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 ★ 지르코니아 Labial, Buccal, Occlusal, Surface의 부분 Build up에서 Glazing까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 졸업하고 Build up을 배우고 싶으신 분
 - 새로이 Build up으로 전환하시는 분 - 전지를 배울 기회가 없는 분 등
 - 준비물 : 상악 1번 cap 5개, 6번 cap 3개

[11~21번, 12~22번, 21~23번, 상악 구치 3본] Bridge 등

토요일 3회, 6회 Build Up 세미나

- Build up에서 Glazing까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단시간에...

1:1 Build Up 세미나는

초보분들도 형태나 빌드업 테크닉을 따라오기 쉽게 만든 세미나 과정입니다. 이과정들 거치면 빌드업은 물론 CAD design이나 컬러링, 통지르코니아 Glazing작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치과기공학회 제47차 정기총회

제19대 기공학회장 이정수 교수
신임 감사 이광영·김남중 교수

지난 1월 16일(금) (주)신흥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치과기공학회 제47차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정수 가철성치과기공학회장(신구대 치기공과 교수)이 제19대 기공학회장에 당선됐다.

이정수 신임 기공학회장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고도화, 소재 장비 기술의 급격한 진전 및 치과시장의 구조 변화는 우리의 역할과 전문성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식 기반 학회, 연구 중심 학회, 미래 지향 학회의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회지 등재 유지 및 국제적 위상 강화 ▲치기공학과 의무 실습 가이드라인 구축 및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 회와 협의 ▲해외 기능경진대회 참여 및 국제 교류 확대 ▲분과학회 통합 학술대회 개최 ▲연자 등용의 공정성 확보 및 미래 포럼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정수 신임 기공학회장은 수석 부회장으로 이주희 교수(대전보건대 치기공과)를 선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창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수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좌로부터 우창우 선관위 위원장, 이정수 당선자, 권은자 기공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선출에서는 이광영 교수(원광보건대 치기공과)와 김남중(신한대 치기공학과) 교수를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2026년도 사업 및 수지 예산 승인의 건에서는 학회장 활동비, 감사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2026년도는 정기회의비에 학회장 활동비, 감사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차기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제47차 정기총회 개회식에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 기공학회 김영곤·최해명·석일현·변태희 고문, 우창우 명예회장, 최성민 한국치기공(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등 내외빈과 총회 인단 80여명이 참석했다.



권은자 기공학회장



김정민 협회장

권은자 기공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치과기공학회 산하 8개 분과학회가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 선출 또는 연임 등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 있는 학술 활동을 이어가는 등 학회 전체의 학문적 역량과 조직적 안정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공학회는 치과기공 분야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



최성민 교수협의회장

안 헌신과 봉사로 학회를 이끌어 주신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19대 집행부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최성민 한국치기공(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학회와 같은 단체는 원론적인 목적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며 “대한치과기공학회는 임상 기술과 학문적 연구가 병행되는 단체로, 치과기공학의 정의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상자

- 협회장 표창 | 박종경 편집이사, 치과캐드캠기공학회 강남길 부회장
- 임기만료 분과학회장 공로패 | 이창화 치과교정기공학회 회장, 유하성 치과도재기공학회 회장, 김노국 임플란트기공학회 회장, 이주희 심미치과기공학회 회장, 이정수 가철성치과기공학회 회장, 최범진 치과기공기재학회 회장, 백웅 치과캐드캠기공학회 회장, 이희경 악안면보철기공학회 회장
- 임기만료 임원 재직기념패
 - 임기만료 감사 공로패 | 한만소, 최성민 감사
 - 우수회원 표창 | 대한치과기공학회 교육이사 김경임, 치과교정기공학회 명예회장 이창화·회장 김진성, 치과도재기공학회 사업이사 김세진, 기자재이사 이현수, 임플란트기공학회 기획부회장 이홍섭, 심미치과기공학회 협력이사 이하빈, 가철성치과기공학회 기자재이사 정창섭, 치과기공기재학회 편집이사 박유진, 악안면보철기공학회 명예회장 황성식

제13대 대한경영자회 회장 임후보자



기호1번 윤서열

제13대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 후보

경력사항

- 대한경영자회 제7대 기자재이사
- 대한경영자회 제8대 총무이사
- 대한경영자회 제9대 수석부회장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7대 기자재이사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9대 부회장

1. 보험 보철료 정당 수가 확보
2. 인력고용 안정 지원
3. 기자재 공동구매 및 투명화
4. 회원사 권익보호 및 소통강화

첫째, 보험 보철료를 치과기공소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데 협력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둘째, 치과기공소 인력 양성과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젊은 인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자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사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넷째, 회원사 권익 보호와 소통강화를 통해 중앙회가 진정한 회원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 **수익성 사업 실행** : 협회로부터 받는 연간 예산으로 오롯이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협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은 분열만 초래 할 뿐입니다. 경영자회원님들의 참여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분명 존재합니다.
2. **교육사업** : “치과기공소가 잘 되려면 직원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순 치과기공기술뿐 아니라, 노무, 계약서 없는 장비 구입, 세무에 관한 교육까지 해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한 표준 근로 가이드, 표준 장비 구입계약서 등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3. **결제시스템의 변화** : 기공료 미수금을 받기 위해 어려움이 많은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몇 곳 안되는 카드결재를 위해 단말기 구매 및 정기 수수료를 내는 것 또한 부담입니다. 해결 방안은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개개인이 신청하면 안되지만 경영자회의 이름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치과기공소 전용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호2번 김현호

제13대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 후보

경력사항

- 대한경영자회 제10대 기공이사
- 경기도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 (2020.03~2023.02, 역임)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8대 기공이사
- 대한경영자회 제12대 부회장

첫 번째, 저가염매행위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힘들어지는 회원들의 소망인 저가염매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하겠습니다. 회원들의 노력과 정당한 댓가에 맞는 기공료를 경영자회에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위임진료와 일명 보철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회원들이 거래를 이유로 위임진료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재재를 당해도 오롯이 저희 회원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대한경영자회는 협회 산하단체에서 벗어나 특별자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재정 및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자회를 더욱 강하게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2대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해외보철 수주사업과 기공물 배송 물류사업을 이어받아 플랫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흩어진 회원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회원들이 경영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대일 소통창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회원과 대의원님께 총회 때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회무진행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약

1. **저가염매행위 근절 및 저가 염매행위 강력 대응** :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저가 염매행위에 강력 대응, 회원의 노력과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공료 기준 마련,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하는 기공계 실현
2. **위임진료, 불법 보철사 근절, 회원 보호 강화** : 위임진료 및 불법 보철사 문제에 대해 대한경영자회가 공식 대응 주체 역할 수행, 법·제도로 대응을 위한 전담 대응체계 구축
3. **대한경영자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 예산, 정책 독립운영, 협회 산하 단체에서 벗어나 독립단체로서의 위상 확립, 외부 눈치 보지 않는 경영자회다운 회원을 위한 결정
4.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경영자회 경쟁력 강화** : 12대 집행부 추진 사업의 실질적 완성(해외 보철 수주사업, 기공물 배송 물류 사업), 단발성 사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
5. **회원 중심 소통 혁신** : 회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일대일 소통창구 개설, 총회 때만 보고되는 회무운영 탈피, 정기적(분기별)인 회무보고 및 공유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 대법원 판결 받아내

치과임플란트급여 Q&A ‘PFM 11만원’ 명시, ‘KDTEX’ 상표권 등록

제25대 협회장(2014.3.~2017.2.)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협회 창립 초창기부터 협회에 초석을 다져 오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찾아 선배님들이 겪어 오신 애환이나 고초,
후배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실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합니다.

Q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2013.12, 제24대 손영석 회장)된 의료기기업체와 관련, 법정 공방 끝에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라는 대법원 판결(2015.7)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소회를 밝혀 주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법적 조력을 받는 대형 제조업체에 맞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제25대 집행부 모두는 하나되어 혼을 실었습니다. 다가오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 첨단 장비를 갖춘 대기업체들의 기공시장 침범은 우리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의료기사법에 디지털 기공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의료기기업체들을 제압할 법적 논리가 부족하였습니다.

25대 협회 임원들은 숙위 끝에 검사님의 자문을 받아 판사님을 설득할 자료 수집과 유관 단체의 지지성명 자료 수집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지지지원서와 의료기사연합회 지지 탄원서, 한국노총의 탄원서를 받았고, 대내적으로는 전국 치과기공과 교수님들의 탄원서, 2804 회원들의 헌신적인 자료 수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전 회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 등으로 우리의 업권을 보호할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박호성 기획이사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Q 임기 초인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책자에 치과기공용 임플란트 PFM 가격을 11만원으로 명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가오는 보험보철에 대해 치과기공사의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틀니에서도 힘의 논리로 우리는 치과기공사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인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법적으로 기공료의 명시와 꼭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소장님들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PFM가격을 유관단체의 도움으로 ‘11만원 명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공료를 의무적으로 치과의사가 이행해야 하는 후속법에는 치협 반대 부딪쳐 10개월 동안 치과기공사회, 복지부와 치과의사회간 회의는 치과의사를 법적 굴레에 가둔다는 치협의 공색한 논리로 시간 끌기에 국회의 도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회장 임기가 끝나 미완의 법으로 남게된 것이 지금까지 통한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Q 한국의 치과기공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국제 치과기 자재전시회를 표방한 ‘KDTEX’ 브랜드 상표권 등록, 대한치과기공사협회 50년사 발간,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급여 비급여 명시 아태회원국 지지 성명서,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KDTEX는 제25대 집행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세계 선진 각국의 치과 전시 시장의 활성화는 그 나라의 위상과 학문 발전의 척도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시는 세계시장의 기공장비의 경연장으로 미래 치과기공의 발전과 기공교육의 이정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시회의 고유상표권 도입이 필수적이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졌습니다. 독일이나 중국, 미국 등과 견줄만한 한국의 전시 문화를 만들어 세계적인 dental show를 한국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협회 50년사의 발간은 돌이켜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협회의 소중한 기록들을 한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은 후대에 기억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편집 과정에서 헌신적인 도움을 주신 이청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과기공사 대국민 홍보는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국회, 정부기관의 관심을 가져와 우리 업권 보호를 위한 입법 등에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Q 회무 업무중 아쉬웠던 점과 치과기공계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치과기공사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뛰다보니 열악한 대외환경에서 마음과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치과기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가 힘있는 단체의 논리로 짓밟힐 때 역대 협회장님들의 고뇌가 그려집니다.

존경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대한민국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 많이 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임원들께서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 자랑스러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도 회장님들은 회원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지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 장수경

치과의사, 방문간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 ‘NO’

법제처 법령해석, 시설장 상근 원칙... “의료기관 근무 병행 인정 안 돼”

의료기관(치과)을 운영하며 근무 중인 치과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법제처는 ‘노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답을 내놨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장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상근’의 의미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른바 풀타임 근무만을 상근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직원 교육 및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의무 또한 부과돼 있어 시설장의 상시적인 근무와 책임이 전제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치과의사는 의료 및 구강 보건 지도라는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겸직 불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치과의사...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료인이 의료법인 대표 등 자격으로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부터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듬해부터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4곳의 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법인 명의 의원들의 인력 채용과 급여 등을 결정하는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의료기관 중복 운영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약 3억6000만원을 편취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

도 제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 등 2명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유지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치과병원 포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에 해당하는 등 추가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추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A씨가 치과병원을 운영했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제37차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 개최

서진무 대전회장 연임



서진무 회장

지난 12월 20일(토) 대전보건대학교 9동 제1계단 강의실에서 개최된 제37차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에는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장, 유효종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 부회장, 최훈이 총무이사, 김지현 공보이사, 권광수 충청북도 치과기공사회 회장, 김노국 대구광역시 치과기공사회장이 참석하여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다.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장 김정민 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는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의미 있는 해였으며 회원권의 보호와 직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면허 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2026년은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정필 의장은 개회사에서 “회원 간의 신뢰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자리가 대전회의의 단합과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집행부 임기 동안 대전회의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서진무 회장과 제13대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상은 먼저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장 표창 전창근 회원, 대전광역시 의료관련분야 유공자 표창 조재현 부회장, 김기백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대전치과기공사회 회장 표창 김기수 회원, 황인정 회원, 공로패는 최정필 의장, 권준혁 수석

감사, 이광철 감사, 감사패는 13대 집행부 임원 15명이 수상하였다.

최정필 의장 주재로 진행된 총회에서 ▶ 전 회의록 인준 ▶ 감사보고 ▶ 2025년 회무 및 결산 보고 ▶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상정 안건 토의에서는 중앙회의 전국 시도회 회비 단일화 정책에 맞추어 기존 자동이체시 2,000원 할인 적용을 중지하여 26년 1월부터 월 1만원으로 동일 적용 안건이 통과되었다.

서진무 회장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2025년을 대전회와 함께한 뜻깊은 시간으로 회고하며, 그동안 회를 믿고 함께 해 준 회원들과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원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대전회



가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후배 세대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회무를 마무리하며, 차기 집행부가 원활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끝까지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인사말을 맺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서진무 회장이 대전광역시치과기공사회 14대 회장으로 재선되어 연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신임 의장으로 최종협 고문, 부의장에 김용태 고문이 선출되었으며, 이광철 수석감사, 김광봉 감사가 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회원들에게 커피 선불카드, 수건, 칫솔세트 등의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하여 다양한 상품을 골고루 나누면서 즐거운 미소로 제37차 대전광역시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다.



대전광역시 의료분야 유공자 표창



감사패 (13대 집행부임원 15명)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제14대 회장 당선



협회장 표창



대전회장 표창



공로패

강원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 제61차 정기총회 및 제17차 경영자회 정기총회

신임 회장에 임용운 경동대 교수



임용운 회장

강원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회장 황성식)는 2026년 1월 10일 강원도 경동대학교 문막캠퍼스에서 제61차 정기총회 및 제17차 경영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5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예·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장 선출,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치과기공계의 주요 회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마련되었다.

회의는 황성식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황성식 회장은 지난 회기 동안 강원회가 추진한 회무 내용을 총괄 보고하며, 디지털 치과기공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 대외 협력 채널 유지, 회원 소통 기반 확대 등 현안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어 전년도 회무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되었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심의 결과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임기 종료에 따라 황성식 회장이 직무를 마무리하였고, 선거 결과 임용운(경동대 교수) 회원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임용운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급변하는 치과기공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



다”고 밝히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 치과계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협회기 전달식은 회장단 이양을 공식화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시상에는 한 해 동안 협회와 지역 치과기공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이 표창을 수여받았다. 대한치과기공사회협회장 표창은 주재연 회원이 수여받았으며, 경영자회 표창은 신정열 소장이 수상하였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 회장은 원종하 회원과 고영국 회원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시상은 협회 및 지회 활동 기여도, 직무 수행 성실도, 지역 치과기공계 발전 공헌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상자들은 회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한편 새 집행부는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디지털 치과기공 교육 확대, 회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 및 교육기관 연계, 지역 치과계 협력 기반 구축, 미래 기공인력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CAD/CAM 기반 작업환경의 확산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 표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세미나, 실습 교육,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 해의 회무를 정리하고 회장단 이양을 통해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치과기공계 발전과 회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북도 치과기공사회 제50차 정기총회

권광수 충북회장 연임



권광수 회장

제50차 충청북도 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회장 권광수)가 지난 1월 10일(토) 청주 글로스터호텔 단홀에서 100여 명의 회원 참여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제50차 충청북도 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가 이재훈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시작하였다.

권광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충북치과기공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지난 반세기 동안 선배들의 헌신과 회원들의 열정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와 단단한 충북치과기공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였다.



권광수 회장



김정민 협회장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정상일 회장

개회식에는 대한치과기공사회협회 김정민 협회장과 최호준 재무이사, 서창범 기획이사, 충청북도의회 이상섭 의장, 충청북도의원 안치영 도의원, 충청북도보건정책과 한찬오 과장, 충청북도치과 의사회 정상일 회장, 충청북도방사선사회 정원희 회장,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김창수 회장,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서진무 회장, 충남치과기공사회 김인선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시상식에서는 충청북도지사 표창 김시철, 이수영 회원, 충청북도의장 표창 윤인한 고문, 이흥구 고문, 최재우 의장, 김주범 고문, 대한치과기공사회협회장상 김동희(중원) 회원, 충청북도 지회장상은 유성왕(상아), 한채연(보람) 회원, 충북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장상 이재훈(아토) 회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최재우 의장, 김기룡 수석감사에게는 감사패 수여하였으며,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치기

공과의 창의적인 학업 능력을 통하여 치과기공사라는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기대와 희망에 도움이 되고자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최재우 의장 주재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전 회의로록 인준에 이어 2025년도 일반 회무,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이의 없이 통과되었



으며,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도 무리 없이 통과되었으며, 신임의장단 선출을 하였다. 김주범 고문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감사는 김기룡 수석감사, 박인석 감사가 연임되었다.

제20대 신임회장 선출에는 19대 권광수 회장이 연임 재선되었다.

마지막으로 1인 1경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경품을 푸짐하게 준비하여 회원들의 만족감과 감사를 전하며 제50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 제61차 정기총회

새 희망과 AI시대 제2의 전북회 이끌 신임 회장에 김정미 당선



김정미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 제61차 정기총회(회장 장도영)가 지난 1월 17일(토) 전북대학교병원 모악홀에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며 개최되었다.

1부 무료 세미나로 원종하(DS플란트치과 기공실장) 연자의 '컬러링 없이 자연스런 노년치 형성과 자연스런 치은형성'을 연제로 데모 시연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알차게 마무리하여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전북특별자치도 제61차 정기총회 개회식은 이준성 총무이사의 사회로 회순에 따라 치과기공사윤리강독(부회장 신형준)이 진행되었다.



안성기 의장



장도영 전북회장



김정민 협회장

안성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외빈 참석 감사 말씀을 전하며 2025년 발자취를 바탕으로 2026년 한해 살림 및 전북회를 이끌 제29대 임원 선출에 있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베푸는 질의답변을 표명하였다.

장도영 전북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회 발전에 힘써주시 회원에 감사드리면서 회원 권익, 회무 안정, 학술 소통 강화, 전북치과기공사 영역 홍보 및 강화에 힘입어 차기 전북회에서는 회원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더욱 단단히 현장에 도움이 되는 회무, 회원에게 힘이 되는 전북회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김정민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29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인 치과기공사 전문성 및 권익 향상 아울러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보수교육의 질 향상 면허관리 고도화, 대국민 홍보, 사회적 역할 확대, 치과기공사 전문성 공공적 가치 홍보를 필두로 28대 집행부 업적을 치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회원분들의 헌신으로 협회가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필언하였다.

김용태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장은 격려사로 16개 지부 이상으로 경영자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격려, 향후 협회와 경영자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차기 대한회 경영자회에 회원분들의 경영 활성화 인프라가 잘 마무리될 줄언하였다. 이어 협회장 표창장, 모범회원 표창장 및 장학증서 수여를 끝으로 개회식이 마무리되었다.

제2부 본 행사인 정기총회에서는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의장단 선출, 임원 선출, 2026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중앙대의원총회



안전상정 순서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최근호

회원은 깊이 있는 질의로 전북회에 바라는 회무 및 차기 회장 선출에 심도있는 최종 결론도출에 힘을 실어 주셨고 많은 회원분들의 의견을 대리 청정해 주심에 29대 임원선출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제61회 정기총회의 교두보이자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를 이끌 회장 후보에 단독출마한 제28대 부회장 김정미 후보는 전북회 회원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은 공약을 피력하고 이후 회원분들과 질의 응답을 이어간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오) 필두로 전북회 회원 만장일치로 제29대 전북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 회장으로 김정미 후보가 당선되어 당선증과 함께 축하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이어 신임 의장에 이성효, 부의장 이준성·김세훈, 신임 감사에 문선숙·신동욱·조선익 회원을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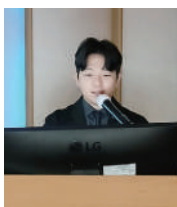
새 희망과 AI시대 제2의 전북회를 이끌 제29대 집행부에 전북회 회원에 회원을 위한 그리고 회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다함께 협력하여 발전되길 기원하면서 전북회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내빈으로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장 김정민 협회장, 최호준 재무이사, 서창범 기획이사, 박용의 역대 협회장, 서정준 감사, 대한경영자회 김용태 회장, 송헌용 기공이사, 조미향 대한여성회장, 김윤곤 광주 회장, 김용철 경기회장, 나성욱 전남회장, 윤서열 원광보건대 총동문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전북회 총회를 축하해주었다.



수상자

- 대한치과기공사회협회장 표창 | 조달균
- 전북경영자회 정기총회 모범회원 표창 | 이용수
- 전북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 장학증서수여 | 김선빈
- 전북회 모범회원 표창 | 박화선
- 전북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 감사패 수여 | 박용의 고문



원종하 연자 강연



김정미 신임 회장에 당선증 전달

경상북도 치과기공사회 61차 정기총회

신임 한석윤 경북회장 선출



한석윤 회장

지난 1월 10일(토) 경상북도 치과기공사회 제61차 정기총회가 경북 영주 축협 한우프라자 3층에서 1부 경영자 총회, 2부 개회식, 3부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경영자 총회에서는 경영자 회원들간의 유대 강화를 다짐하고 안중희(영주 소백치과치과기공소)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2부 개회식에서 허유영 경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상북도 치과기공사회 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과 회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였고,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함으로 지난 3년을 잘 지나올 수 있었고, 앞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며, 회원간 연대와 소통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치과기공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치의학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성 위에 환자 중심의 맞춤형 기공으로, 지역 치과 의료를 책임지는 신뢰받는 치과기공사로 나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였고, 회원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노고에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렸다.

다음으로는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 김정민 협회장의 격려사를 윤서열 부회장의 대독으로 지난 1년간 수고한 허유영 회장과 임원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고,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늘의 협회가 있었고,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였으며, 협회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9대 집행부는 국회와의 협력 확대, 업권 보호, 보험제도 개선, 보수교육 내실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고, 2026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치과기공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새롭게 출범하는 신임 집행부에도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하였다.

경북치과의사회 염도섭 회장은 경북회의 61차 정기총회를 축하하여 주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재 치과계는 지역을 불문하고 과다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였고, 이럴 때일수록 양 단체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차기 집행부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하며, 경상북도 치과기공사회의 더욱 크나큰 발전을 기원하였다.

내빈으로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 윤서열 부회장, 허용준 기자재이



사, 정범식 사업이사,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 김현호 부회장, 전성진 교육이사, 김노국 대구회장, 노정석 명예회장, 경북치과의사회 염도섭 회장, 전용현 부회장, 영주시치과의사회 장호경 회장께서 참석하였다. 신재원 고문, 최재주 고문, 박덕희 고문, 한석윤 명예회장도 참석하였다.

3부 회의에서는 류봉모 의장의 진행으로 2025년 회무보고 승인의 건, 2025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제29차 임원 선출의 건, 부의안건으로 감사임기 3년 연장의 건으로 진행되었다.

제29대 지회장 투표에서 한석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된 한석윤 후보는 소감으로 지지를 해준 회원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 3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류봉모 의장은 병오년 경북회 회원들 모두의 건강과 사업번창을 바라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수상자

- 대한치과기공사회 협회장 표창 | 박진수 회원
-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장 표창 | 고일훈 회원
- 제 61차 경북치과기공사회 모범회원 표창
- 지회장상 | 정만선, 박재필 회원
- 경영자회장상 | 김재규 회원
- 경상북도지사 표창 | 양해용 회원
- 경북의료기사회연합회 모범회원 표창 | 김승수 회원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

박정일 후보 제11대 서울경영자회장 당선

2025년 12월 20일(토)에 제23차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치과기공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유재운 서울경영자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김현호 대한경영자회 부회장, 박명찬 대한경영자회 법제이사, 정규상 대한경영자회 노사이사, 송영주 서울치과기공사회 회장, 하대중 총무이사, 서울경영자회 배대식 고문 등이 참석하여 경영자회 발전을 위하여였다.

대한경영자회 모범회원 표창장은 라온치과 기공소 박수형 경영자회원, 서울경영자회 모범회원 표창장은 앞선치과기공소 이동훈 경영자회원이 수상하였다.

2부 회의를 시작하며 제1호의안 전회의록 인준은 오자·탈자 수

정 후 인준하기로 하였고, 제 2호의안 2025년 회무 보고 및 감사보고는 유인 물대로 통과되었다. 제3호의안 2025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의 건은 통과되었다. 제4호의안 의장단 선출에서 기존 의장단이 연임하기로 심의에 통과하였다. 제5호의안에서 제11대 회장으로 기호 2번 박정일 후보가 선출되었다.



김현호 대한경영자회 부회장, 박수형 경영자회원

었다. 제6호의안 대한경영자회 대의원 선출의 건도 통과되었으며 제7호의안 감사단 선출의 건에서도 기존 감사단이 연임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제8호의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10대 서울경영자회 임원 (손진환 총무이사, 박수형 부회장, 박정일 부회장, 유재운 회장, 고지환 교육이사, 오진규 기공이사, 남윤탁 재무이사, 이상헌 노무이사)



신임 박정일 서울경영자회 회장, 전임 유재운 서울경영자회 회장

자회와 16개시도 경영자회와 함께 힘을 모아 치과기공사의 업권과 기공소를 잘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제2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박정일 후보가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총회는 경영자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정일 신임 회장은 투표를 통

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 회장은 공약으로 ▲회원 확보와 ▲정기적인 자율지도 실시를 내걸었다. 앞으로 서울치과기공소 경영자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서울치과기공소 경영자회는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치과기공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제37차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정기총회

조재현 대전경영자회장 연임

제37차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조재현)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20일(토) 대전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대전보건대학교 9동 제 1계단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37차 대전경영자회 정기총회에는 김용태 대한경영자회 회장과 송헌용 대한경영자회 기공이사, 조정기 충북경영자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대한경영자회장 표창은 김홍석(미소지음치과기공소) 회원이 대전경영자회장 표창은 이동규(어울림치과기공소), 최형규(조이치과기공소) 회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최정필 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 전 회의록 인준 ▶ 감사보고 ▶ 2025년 회무 및 결산보고 ▶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대전경영자회는 총회 전 약 30여 분간 노동법률 올바름 김학문 대표가 경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기공소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인사 노무관리 및 세무 기장 등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커피 선불카



드, 수건, 칫솔세트 등의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하여 또 다른 만족을 더 하였다.

조재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외 정세와 경기 침체로 여전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2025년을 언급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장을 지켜온 경영자 회원들의 노고와 부담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조재현 회장이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제 13대 경영자 회장으로 재선되어 연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신임 의장으로 김용태 고문이 선출되며 제37차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대한경영자회장 표창



대전경영자회장 표창



인사노무관리 및 세무기장 교육 실시



대전광역시 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제13대 회장 당선

제주경영자회 정기총회, 신임 백상목 회장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치과기공소 경영자회는 12월 12일(금) 제주치과기공사회관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현직 권혁하 회장과 김봉조 총무를 비롯하여 제주치과기공사회 부성만 지회장, 강경보, 문희성 고문 등 내빈과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해당 축사는 전국 경영자회 이규용 협력이사가 대독하였다. 아울러 경영자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격려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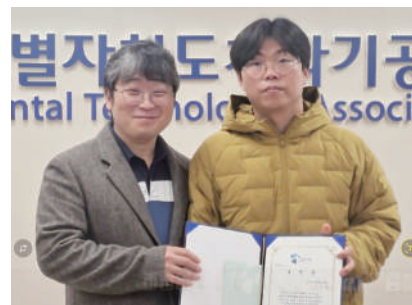
이날 임원 선출에서는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치과기공소 경영자회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백상목 회



장이 선출되었으며, 김승찬 총무가 함께 선출되었다.

또한 모범회원 표창 수여식이 열려 전국 경영자회 회장상은 허용 회원, 제주경영자회 회장상은 고혁진 회원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향후 경영자회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김윤곤 광주회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윤곤 광주광역시 치과기공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윤곤 광주회장은 2011년부터 광주회 공보이사, 광주경영자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사회봉사활동으로는 2014년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광주

남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세척봉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보건의 날에는 북구청 복지계 및 보건소 치과센터와 연계하여 우산근린공원에서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세척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광주시 주최 의료 시니어박람회 노인틀니세척 봉사 부스에 참여하였으며, 2017년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남구청 구강보건캠페

인에 따른 틀니 세척봉사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소외된 독거노인 계층 어르신들의 구강 보건의로 향상을 위해 의료 봉사 사업의 기공팀 보철제작 의료기사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광주 소재 5개 구청 및 KBS 광주방송국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공부방 지원사업,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복 지원사업 등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보건의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변화하는 치과기공 기술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의 보수교육을 독려하며, 매년 자율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치과기공 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광주보건대 치기공학과 한승우 학생, 제53회 치과기공사 국가면허시험 전국 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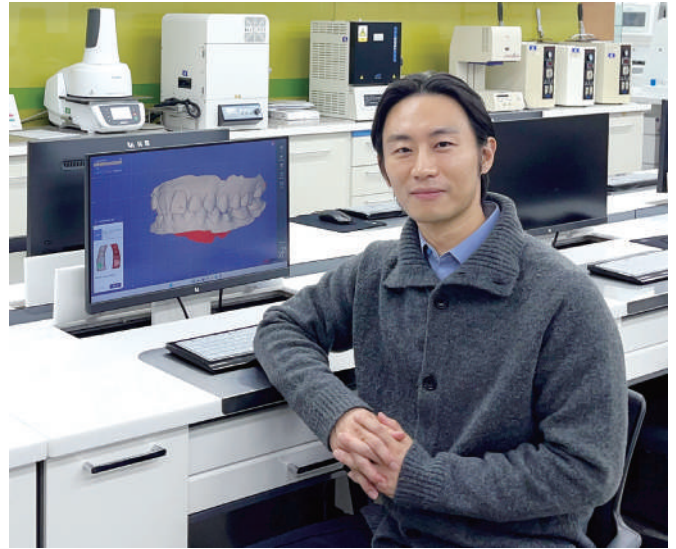
광주보건대(총장 김경태) 치기공학과 한승우 학생이 2025년도 치과기공사 국가면허시험(제53회)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한승우 학생의 꾸준한 학습 노력과 함께, 광주보건대 치기공학과가 추진해 온 실습 중심/현장 연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승우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치과기공 기초 이론을 비롯해 CAD/CAM 기반 디지털 보철 제작, 임플란트 보철 실습 등 최신 치기공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며 전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면허시험 출제 경향을 반영한 단계별 실습 훈련과 반복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준비한 점이 수석 합격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한승우 학생은 학업 성취뿐 아니라 학과 내에서 동료 학생들의 학습을 적극 지원하며 멘토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가면허시험 대비 과정에서는 모의 실습 점검, 학습 방법 공유, 후배 및 동료들의 질문 대응 등을 자발적으로 이어가며 학습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으며, 이러한 협력적 학습 문화가 전체 학습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승우 학생은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실습 위주의 교육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확성과 윤리를 갖춘 치과기공사로 성장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



다”고 말했다.

김경태 광주보건대 총장은 “이번 전국 수석 합격은 학생 개인의 노력은 물론,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대학의 교육 성과가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광주보건대는 치과기공 분야를 비롯한 보건 의료 전반에서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치과의료연감은 12번째 발간으로, 치과계의 주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입안자, 학계, 유관 단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은 ▲ 일반 현황 ▲ 보건의료재정 ▲ 치과의료이용 ▲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 치과의료 자원 ▲ 구강보건사업 ▲ 치의과학 교육, 연구 및 산업으로 구성된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연도 자료를 반영해 내용의 시의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번 연감에서는 돌봄 통합과 관련된 노인 등 중요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OECD 통계를 확대해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 치과의료 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했다.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PDF 및 Excel 파일(통계표)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 노인의 저작 기능과 삶의 질 및 스트레스 인지와의 관련성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2)

이선경¹, 성정민² 교수

¹신한대학교 보건대학 치기공학과, ²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지난호에 이어〉

3.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른 저작 불편감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른 저작 불편감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저작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고, 저작 불편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4.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 및 Fig. 1과 같다.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시, 저작 불편감이 0.51배 유의하게 낮았고(odds ratio [OR]=0.51, 95% confidence interval [CI]: 0.36~0.63, $p<0.001$), 우울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저작 불편감이 0.24배(OR=0.24, 95% CI: 0.17~0.96, $p<0.001$),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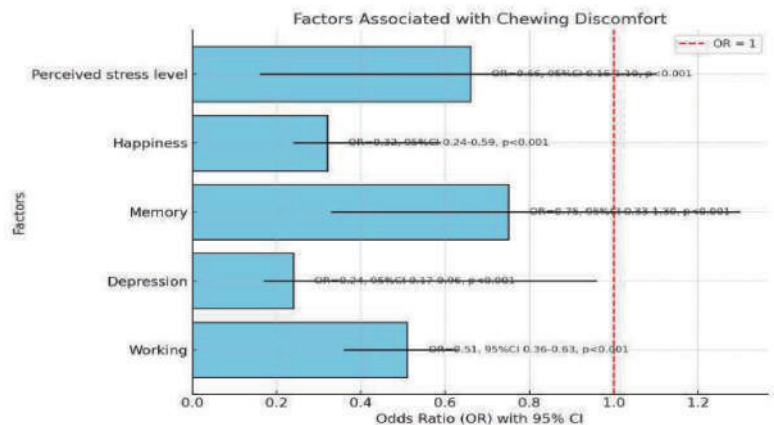


Figure 1. Factors affecting chewing discomfort. CI: confidence interval.

한 응답자는 0.75배(95% CI: 0.33~1.30, $p=0.038$), 행복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32배(95% CI: 0.24~0.59, $p<0.001$), 스트레스 인지가 낮은 응답자에게서는 0.66배 저작 불편감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됐다(95% CI: 0.16~1.10, $p<0.001$) (Fig. 1).

Table 3. Chewing discomfort according to stress perception

Variables	Division	Chewing		p-value ^a
		Chewing discomfort	Chewing comfort	
Perceived stress level	Low stress level	367 [33.1]	741 [66.9]	<0.001
	High stress level	95 [47.7]	104 [52.3]	

^aBy a chi-square test with complex sampling.

Table 4. Factors affecting chewing discomfort

Variables	Division	Adjusted model		p-value ^a
		OR	95% CI	
Working	No difficulty in working	0.51	0.36~0.63	<0.001
	Difficulty in working	(1.00)		
Depression	Not depressed	0.24	0.17~0.96	<0.001
	Feeling depressed	(1.00)		
Memory	No problem memory	0.75	0.33~1.30	<0.001
	Problem memory	(1.00)		
Happiness	Happy	0.32	0.24~0.59	<0.001
	Not happy	(1.00)		
Perceived stress level	Low stress level	0.66	0.16~1.10	<0.001
	High stress level	(1.0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By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ISCUSSION

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는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를 지난 중요한 인구 구조 변화의 이

정표로 고령 인구의 급증은 보건의료,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구강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의 균형 잡힌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구강 내 저작 기능은 일상적인 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생리적 과정으로, 음식을 분쇄하고 이를 침과 혼합하여 연하를 용이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5]. 저작 기능의 저하는 구강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삶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제9기 2차 국민건강영양조사(2023)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저작 기능과 삶의 질 및 스트레스 인지 간의 관련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저작 능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hin과 Lee [6]에 따르면 저작 불편감은 연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발표했으며, Cho [7]의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주관적 및 객관적 저작 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연령과 저작 기능의 상관성을 뒷받침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저작 기능의 약화는 취약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문제까지 동반하며, 이로 인해 진료비 부담과 구강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선행 연구[8]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구강검진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Park과 Park[9]의 연구에서는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의 악화가 저작 불편감뿐만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저작 불편감 간의 선행 연구[10]에 따르면, 노인의 저작 능력이 저하될 경우 일상생활 기능인 집안일, 단거리 외출, 교통 수단 이용 등에 있어 기능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Choi [11] 등은 노인의 저작 능력이 인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Won과 Kim [12]의 연구에서는 저작 불편감이 정신 건강 문제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강 기능, 특히 저작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강 건강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분석한 Jang과 Kim [13]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과 씹기 문제가 한국 성인의 우울 증상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Seo와 Kim [14]은 노인의 저작 능력이 신체 기능과 우울을 매개하여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에 따른 저작 불편감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저작 기능 저하가 우울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경제 활동, 인지 기능과 기억력 등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Persson 등[15]은 노년기의 구강 건강 중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불편감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저작 불편

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반대로, 저작 불편감이 적은 경우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다고 보고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활동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일상적인 업무나 활동의 불편함이 구강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저작 불편감을 느낄 확률이 0.24배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향후 노인의 우울증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구강 저작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기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경우, 저작 불편감이 미치는 영향은 0.75배 낮았으며, 이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저작 불편감을 경험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복감은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서 저작 불편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OR=0.32, p<0.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저작 기능은 기억력과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씹기 활동이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결과[16]와 저작 불편감이 행복감을 저하시킨다는 연구[17]는 저작 기능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일하기, 우울, 기억, 행복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저작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정신 건강 요인들이 저작 불편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국한되지 않은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구강 기능과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S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한국 노인의 저작 기능과 삶의 질 및 스트레스 인지 간의 관련성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저작 불편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0.001$).
2. 저작 불편감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저작 불편감이 없는 대상자에게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우울함을 느끼지 않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국산 세라믹 소결로의 치과기공 임상유용성 평가 I : 초급속 소결에 따른 치과보철물의 적합도



김재홍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기공학과

〈서론〉

지르코니아는 천연 광물인 baddeleyite나 지르콘에서 생산되며 ZrO_2 이며 비중은 5.7 정도이며 경도는 6.5이다. 순수한 지르콘은 지르코늄 (ZrO_2)을 약 70% 정도 함유되어 있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HF, H_2SO_4 , HNO_3 , HCl 등에 녹는다. 상온에서는 흰색 결정으로 나타나며, 결정은 실온에서는 단사정(monoclinic) 구조를 가지나 $1,170^\circ C$ 이상 온도를 높이면 정방정(tetragonal) 구조를 거쳐 $2,370^\circ C$ 이상 온도를 높이면 입방정(cubic) 구조로 변환된다.

치과용 재료로 사용되는 지르코니아는 3 mol%의 이트리아를 첨가하여 안정화한 정방정 지르코니아 다결정체(yttrium tetragonal polycrystals: Y-TZP)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치과용 지르코니아 보철물 제작은 CAD/CAM 시스템을 통해 제작할 시 사용될 재료에 따라 최소 두께를 부여하여 치아 삭제를 한 후 스캔하여 디자인 과정을 거쳐 밀링을 한다. 밀링 후에는 소결 과정을 거쳐 스테인 또는 글레이징 처리를 하여 마무리한다.

이때 소결 과정에서는 보철물 가공을 위해 제조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350^\circ C$ 에서 $1,550^\circ C$ 사이의 다양한 최종 소결 온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넓은 범위의 소결 온도와 시간은 결정립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치과용 3Y-TZP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급속소결에 따른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기계적 특성, 미세 구

조, 광학적 특성 및 마모 특성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에서 유망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초급속 소결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적합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급속 소결이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및 재료〉

1. 시편제작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보철물 형성을 위한 chamfer margin의 표준형태 아크릭 치형 모델(AG-3 ZPVK, Frasco GmbH, Tettang, Germany) 중 상악 우측 견치를 사용하였고, 시대치는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의거하여 지르코니아 코어의 두께나 변연모양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 코어의 형태는 처음 적용되는 형태에서 수정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내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시멘트 공간은 CAD 소프트웨어(Dental system 2018-1 × 64, 3shape, Denmark)를 사용하여 마진 0.5mm 상방에서 $30\mu m$ 값으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디자인된 코어의 CAD 데이터를 절삭가공 장비(DWX-50, Roland DG Corporation, Shizuoka, Japan)에 적용하여 절삭가공을 실시하였다.

bur의 끝은 부드러운 절삭을 위한 라운드 형태를 선택하였다. 또한 bur의 굵기는 2Ø, 1Ø, 0.6Ø의 총 3개의 bur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황삭 가공에는 2Ø bur를 사용했으며, 정삭 가공에는 1Ø



FIGURE 1. Sintering machine(A: Smile 2000, B: 1st door open & 2nd door open)

TABLE 1. Sintering schedule for the zirconia block used in the study

Sintering schedule	Zirconia block	Heating time(min)				Door open($^\circ C$)		
		20~900 $^\circ C$	900~1,560 $^\circ C$	1,560 $^\circ C$	1,560~500 $^\circ C$	1st	2nd	3rd
2h	Luxen 5G	30min	50min	10min	10min	1,200 $^\circ C$	800 $^\circ C$	600 $^\circ C$
2h 30m	Smile Multi, DentalMax, Korea					1,000 $^\circ C$	700 $^\circ C$	400 $^\circ C$

bur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잔삭 가공에는 0.6Ø bur를 사용해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제작이 완료된 시편은 (썬케이아이 국산 지르코니아 소결로(Smile2000, KI,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초급속 소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h 30m sintering schedule : 실온에서 900℃까지 30분 가열하였고, 900℃에서 1,560℃까지 50분 가열하였다. 1,560℃에서 10분 계류 후, 10분 동안 500℃까지 냉각하였다. 1,000℃에서는 소결로의 문을 1차 개방하고, 700℃에서 2차 개방하여 냉각하였고, 그 후 시편을 400℃에서 완전 개방하여 밖으로 꺼내었다.

2. 3차원 중첩분석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소결과정 이후 3차원 모델 스캐너(3Shape E1, 3Shape, Denmark)로 내면을 스캔하여 3차원 형상의 STL 파일을 얻었다.

스캔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STL 파일을 3 차원 중첩 분석 프로그램 (Geomagic control X; 3D systems, Rock Hill, SC, USA)으로 불러와 중첩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내면, 변연부분으로 편집하여 각각 저장하였다. 적합도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참조개체인 기준 데이터와 측정 개체인 스캔 데이터를 지정하여 Initial alignment와 Best-fit alignment 을 차례로 사용하여 1:1로 정렬

하고 데이터 간 편차를 RMS 값으로 산출하였다. 나머지 스캔 데이터들도 과정을 반복하여 RMS 값을 산출하였다.

RMS 값은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며, X1은 참조 개체의 측정 포인트, X2는 측정 개체의 측정 포인트, n은 측정 포인트의 총 수를 의미한다. 이 계산식은 스캐닝 된 2개의 데이터를 중첩 시 3차원 공간 좌표상(x, y, z축)에 있는 2개의 점의 위치의 위상차를 모두 제곱한 값들의 합을 그 점의 갯수로 나눈 뒤 제곱근을 취하면 RMS 값이 구해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산술평균 (mean)을 구하는 값에 비하여 더욱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

Table 2는 두 그룹(2h, 2h 30m)의 RMS 평균, 표준 편차,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여준다. 초급속 소결방법인 2h, 2h 30m 그룹은 RMS 평균(표준편차) 44.45(4.2)µm과 36.15(4.9)µm까지 이르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급속 소결방법(2시간, 2시간 30분)으로 제작된 치과용 지르코니아 코어의 적합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결조건이 치과보철물 제작 시 적합도의 영향여부를 확인하였다. 제한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이한 초급속 소결조건에 따라 제작된 지르코니아 코어의 적합도는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측정된 결과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임상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적합도로 나타났다.

〈Acknowledgment〉

본 학술논문은 (썬케이아이와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산 세라믹 소결로(KI Smile 1000, 2000)의 치과가공 임상유용성 평가' 연구용역에 의한 결과의 일부 내용이며, 예비 실험(pilot experiment)과정 중에 도출 되었다.

$$RMS = \frac{\sqrt{\sum_{i=1}^n (X_{1,i} - X_{2,i})^2}}{\sqrt{n}}$$

FIGURE 2. Root mean square calculation form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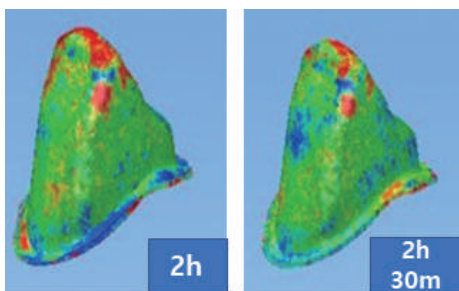


FIGURE 3. Color-difference map of maxillary canine for qualitative analysis of adaptation Green is an exact fit, positive differences than the reference model as yellow and red, negative differences than the reference model as blue

TABLE 2. RMS±SD(µm) discrepancy between the stone replica model(CRM) and the silicone replica

Group	RMS(µm)		
	Mean±SD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Mean	Upper Mean
2h	44.45±4.2	40.55	49.78
2h 30m	36.15±4.9	31.16	39.27

“당신 곁의 구강건강관리 전문가, 치과위생사”

치위협, 대국민 영상 광고 캠페인 전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영상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치위협은 ‘당신 곁의 구강건강관리 전문가, 치과위생사’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12월 15일(월)부터 유튜브 광고 송출을 포함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영상 광고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치과위생사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치과위생사가 전문가로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상은 친근함을 더하기 위해 ‘시민 거리 인터뷰’ 형식을 차용했다.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 ▲교정 진료 중 꼼꼼한 관리를 받는 청소년 ▲임체조와 수분 섭취 교육을 통해 구강 건조증을 개선한 어르신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구강건강을 지키는 성인 등 남녀노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생애주기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뷰 형식을 빌려 경험담을 전하며, “치과위생사 선생님 덕분에 구강건강이 개선됐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는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교육, 구강질환 예방, 구강위생관리, 진료협조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가는 구강건강관리 전문가입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 곁에 항상 치과위생사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마무리된다.

이번 영상 광고 캠페인을 주관한 치위협 김은희 홍보이사는 “이번 광고는 대중에게 치과위생사라는 이름에 담긴 전문 역량을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치과위생사들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26년 신년식 성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치위생계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2일(토)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26년 신년식’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정민 회장(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이선미 회장, 한재희 고문, 황윤숙 명예회장, 장효숙 감사 등 내외빈과 시도회, 산하단체 및 학회장들이 함께했다. 특히, ‘말띠’ 해를 맞아 말띠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특별 초청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년식은 참석자 소개와 20대 집행부 인사로 포문을 연 뒤 박정란 회장의 신년사, 내외빈 축사,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란 치위협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제20대 집행부는

2026년 핵심 과제로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정민 총회장(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이 치위생계를 위한 축사를 전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치위협과 치기협은 현장을 함께 고민해 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역 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제14회 사인학술상 수상자로 곽영준 원장 선정

제14회 사인학술상 수상자로 곽영준 원장(연세 자연치과)가 선정됐다.

사인학술상은 한 해 동안 치과 임상 분야에서 학술 활동의 깊이와 임상적 기여도가 뛰어난 임상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말, 치과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돼 현장의 평가가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제14회 사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곽영준 원장은 근관치료 분야에서 17년간 활동한 베테랑 임상가다.

곽 원장은 지난 2010년 (주)신흥에서 주최한 엔도 세미나로 데뷔했으며, 2011년 근관치료 최신 테크닉을 주제로한 핸즈온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2015년에는 ‘곽 원장의 디테일 엔도, 엔도 잘하고 계신가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찍부터 근관치료 임상의 핵심을 짚은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학술 행보를 바탕으로 곽 원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연구 성과와 진료 현장에서의 실천 중심 강연을 높이 평가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곽 원장은 제19회 2025 DV conference에서 ‘재근관 치료의 높은 허들, 하나씩 넘어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재근관 치료 과정에서 임상가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에 따라 곽영준 원장은 사인학술상 수상 특전으로 제21회 2027 DV conference에 연자로 공식 초청돼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DV conference는 임상가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학술을 지향하는 국내 대표 치과 학술대회로, 매회 수준 높은 연자와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신뢰를 받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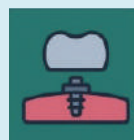
한편, 제20회 2026 DV conference는 ‘온라인 학술 등록 & 쇼핑 No.1’ DVmall(www.dvammall.co.kr)에서 사전등록이 진행 중이다.

보험보철물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르코니아가 추가되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보철수복은 PFM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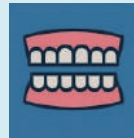
기성지대주만 사용합니다

임플란트 지대주는 반드시 기성지대주만 작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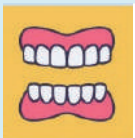
Co-Cr 금속류로 만듭니다

부분틀니 Frame은 코발트 크롬 합금으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열중합 레진으로 만듭니다

무치악 총의치 레진상은 열중합 레진을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유리섬유 보강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중중합 레진치를 사용합니다

틀니 재료인 인공치아는 다중중합 레진치아를 사용합니다!!

똑바로 알아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는 **치과기공물**은 **치과기공사**가 전문적으로 제작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보험위원회

정보화 사회 〈뇌의 주인은 누구인가〉



장한일

- 논설위원
- 한국문인협회 회원

대한민국은 지리적 영토는 적으나, 게임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도 한다. 게임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순례하듯이 방문하는 한국에서 만든 직업이 바로 ‘프로게이머’이다. 그러나 같은 게임을 다룬다고 해도 한쪽에선 환호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반대쪽에선 게임중독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청소년들이 있는게 문제다.

인간의 뇌는 지구 생명체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특별한 기관으로 뇌는 기본적으로 반복 입력과 몰입경험에 따라 변화하는게 기본 정설이다.

만약 ‘나’라는 기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정보가 반복된다면 뇌는 집착상태로 변하고 집착이 반복되면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뇌과학자들은 진단한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가상공간 게임에 빠지게 되는 계기는 너무 재미나고 신나는 게임이니 밥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중독에 빠지는 경우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리라.

정보화시대에는 신체활동이 줄고,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가 감소하는 대신 스크린을 통한 정보입력과 신경망의 패턴화가 강화되며 ‘무의식 습관’이 작동하는게 문제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초등학교생들에게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데 초기 뇌의 성장을 가상공간이 변형시켜 성년이 되어 인격형성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컴퓨터 혁명을 이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14세 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집과 학교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 결국 그는 인공지능 자연지능으로 인간성의 본분을 강조했다.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흥분성 전달물질이기 때문에 분비량의 많고 적음에따라 인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뇌에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인 우울증 조현병을 유발하며 파킨슨병은 뇌속 신경물질세포가 파괴된 현상이라니.

사랑은 평소와는 다른 본능적 보상이 더 강하게 반응하는 영물로 도파민은 사랑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에 천연 각성제로, 사랑에 빠진 뇌는 마약 중독자의 뇌활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뇌는 생물학적 기관이자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듯이, 뇌도 정보처리 자체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보화 사회에서 도파민이란 신경물질이 노력과 성취를 기반으로 한 보상시스템에서 우울증과 중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은 필요악인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고, SNS활동에 몰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디지를 기계와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적절한 출력을 만들어 내는 정보처리기관이다.

인간의 뇌 구조와 기능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뇌 바깥은 송두리째 정보화 사회에 몸의 활동성은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생명활동의 근관인 생체시계 교란은 극심해졌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심신의 안정을 찾을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뇌와 도파민의 균형을 유지하며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자연과의 교감을 가져 뇌의 휴식을 주고 자신을 지키라고 한다.

자연의 소리는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닷가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끼고 산을 오르며 들리는 새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우리에게 편안함과 기분좋은 감정을 선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인들의 머리가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은 동의족의 후예로 달리는 말안장에서 활시위를 날려 적을 제압하던 DNA가 수십년째 세계 양궁계를 휩쓰는 쾌거도 있고, 어릴때부터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집어먹던 손가락 재주가 기능올림픽을 독식했던 것은 우연이 아닌 조상의 유덕임이라.

이뿐인가 5-80년대 치예공사들이 금박으로 인공치 형태를 갖추느라 하루에도 수백 수천번 돈 나오라 똑딱 금 나오라 똑딱 현란한 손놀림으로 금관을 탄생시키느라 하얀땀을 세웠다.

시대는 변하여 현대 디지털 정보화사회에서 뇌공학도서가 십수년째 도서목록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유대와 공감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제레미리프킨은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種)으로 자리 잡을수 있었던 것은 공감능력 때문이라고 갈파한바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집행부 동정

- 12. 06 강원회 학술대회 | 김정민 협회장, 최훈이 총무이사
- 12. 10 대한치과의사협회 미팅 | 김정민 협회장
- 12. 15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12차 정기회의 | 김정민 협회장
- 12. 16 치의학연구소 관련 부산시 회의 | 김정민 협회장, 변성철 대외협력이사
- 12. 17 2025 전국직능 대표자 회의 성과보고회 | 김정민 협회장, 허용준 기자재이사, 김진홍 여성이사
- 12. 18 대한방문치의학회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 | 강인돈 부회장, 김청곡 보험이사
- 12. 19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면허효력정지 관련 회의(온라인) | 김정민 협회장, 최훈이 총무이사
- 12. 20 대전회 제37차 정기총회 | 김정민 협회장, 최훈이 총무이사, 김지현 공보이사
부천대학교 치기공과 학술제 및 졸업작품전시회 | 강인돈 부회장, 김충명 국제이사
- 12. 22 국회 미팅 | 김정민 협회장
- 12. 2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미팅 | 김정민 협회장

회원 동정

• 일반입회

- 서울회 이우석(36282) 최일준(41563) 방하은(37429) 신승협(40827) 김미주(41320) 황성민(33488) 임성민(40920)
이승현(38530) 오다영(40310) 박혜주(35553)
- 부산회 김정현(41526) 이영은(38269) 이재혁(41479) 권민구(39961) 신우철(32208)
- 대구회 김주영(40739) 최지원(41307) 장지만(40087)
- 인천회 김도연(40081)
- 대전회 고상렬(34600) 김인환(38398) 김한솔(41082)
- 경기회 박종원(34548) 최지혜(38027) 김성중(40115) 김진우(38812) 엄채윤(39458) 김현준(41536) 이동근(40540)
- 전북회 이원규(34851)

• 전입전출

- 김유빈(34504) 충북회 ▶ 서울회 - 김진성(17336) 서울회 ▶ 경기회
- 박주웅(17309) 인천회 ▶ 서울회 - 이동현(28052) 서울회 ▶ 경기회
- 김주연(31862) 서울회 ▶ 부산회 - 이정수(24006) 서울회 ▶ 전남회
- 이재연(32049) 서울회 ▶ 충남회 - 김병진(34204) 대구회 ▶ 경북회
- 황주연(31174) 서울회 ▶ 인천회

• 경영자 입회

- 광주회 임한택(4011) 세심한치과기공소 010-3624-5227
광주 북구 호동로 86 (우산동, 현대아파트상가) 4층 402호
- 경기회 박형주(30985) 파크치과기공소 010-8344-68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장항동, 위너스21 II) 5층 502호
이명희(38539) 엠엔디굿모닝기공소 031-575-5547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54(갈매동) 현대테라타워 A동 928-930호

회원 동정

• 치과기공소 주소변경

- 부산회 이용삼(10637) 뉴굿모닝치과기공소 051-751-2039 부산시 동래구 명서로 148-1 2층
이일홍(6582) 동광치과기공소 051-633-2832 부산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 17 3층
- 경기회 김종희(14383) 선치과기공소 031-274-218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94번길 27 래미안주상가(후문) 201호

• 치과기공소 폐업

- 서울회 안병기(7474) 창치과기공소 장정열(8457) 소망치과기공소
- 대구회 김석률(12566) SR치과기공소 이학수(1341) 티타늄 P&D치과기공소 이시우(10253) 대구벨치과기공소
- 경기회 김종균(15054) 정성치과기공소

• 권리정지

- 대전회 경영자(3명) 김재광(11018) 박인선(11062) 오정석(7276)
일 반(69명) 김민규(38916) 김혜림(21215) 문규리(39816) 송용훈(25022) 신영욱(18451) 윤진영(27623)
이영래(26724) 이현정(38882) 정은경(18858) 정요셉(13141) 김완태(10032) 장덕봉(7627)
김해중(1950) 박은정(9367) 유성오(23512) 김기태(17086) 김동수(7698) 김문수(33544)
김완겸(18914) 박순혁(35813) 백상현(29781) 임하정(32078) 원동환(33972) 이경리(2959)
이민주(34082) 이상철(33604) 임은양(17285) 임태형(37930) 최수인(36824) 허한성(37088)
황찬영(35723) 김진영(38365) 강기목(36845) 김가람(36354) 노민수(37077) 김유식(2528)
전용덕(3849) 이송민(29895) 석예빈(38672) 김민지(36711) 김한빛(38932) 남궁다혜(38443)
박병호(12610) 박필용(23977) 배민식(18973) 신광수(20546) 이병준(38959) 이재문(33917)
이진숙(8899) 임현진(12904) 정준호(34561) 채문식(33281) 현수환(32348) 전해란(33799)
김가현(38613) 김영일(22514) 류성보(37830) 유기형(4390) 이재영(39298) 임하영(36245)
조용연(35937) 차수연(38840) 전정수(36391) 김권이(39724) 신성국(13921) 박선원(39649)
장동익(9684) 천용하(33375) 성미애(21502)
- 충북회 경영자(2명) 민문기(13004) 유하(23505)
일 반(9명) 김기영(8347) 한미연(20890) 전민균(31280) 오서빈(32218) 김은비(35548) 황민주(37286)
이도환(38113) 이수연(38170)
- 전북회 일 반(1명) 이승원(31793)

ISO9001 : 2000KSA9001
: 2001 인증 획득

 **대명합금**

TEL. 02)764-2243~5
080-023-0005
FAX. 02)764-8586

서울치기공업협동조합 제 18차 정기총회 개최공고

본 협동조합 정관 제 4장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제 18차 정기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2026년 2 월 24일(화) 18:00시

| 장소 치과기공사회관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30길 19 (02-2252-9233)

| 안건 제 1회의안 업무보고, 수지결산 및 감사보고의 건

제 2회의안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제 3회의안 임원선출의 건

제 4회의안 기타의 건. 끝

서울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상 원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기!

신고기간 2026.01.01. ~ 2026.12.31.

신고대상 2023년 신규면허취득자, 2023년도 면허신고자,
2023.12.31. 이전 면허발급자 중 미면허신고자

면허신고 주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 해야합니다.

면허신고 절차

1. **면허신고시스템 접속** 협회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클릭 ▶ 면허신고 통합로그인
2. **개인정보동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 체크! 미동의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면허신고 할 수 없습니다.
3. **면허신고서 작성** 신고자 인적사항 작성 및 보수교육 현황 신고
4. **면허신고확인서 출력** 면허신고 후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출력가능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면허신고 시 까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또한 의료기사법 제21조 4항에 따르면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자주 하는 질문

면허신고시스템은 협회 전산인가요?

면허신고시스템은 정부 산하기관의 전산으로 운영 됩니다. 협회 사이트 비밀번호와 연동 불가하며 협회 보수교육 이수시스템과 바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했는데 언제쯤 판정이날까요?

면제 유예 비대상 판정은 보통 2~7일(주말·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 됩니다. 연말이나 면허신고 기간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연도도 면제 신청해야 하나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증 사본으로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면제 처리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시스템 접속 했는데 계속 로딩중으로 나옵니다.

로그인 정보 입력오류나 비밀번호 입력오류일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협회로 문의하시면 해결해드립니다.

타직종 근무자인데 면허신고를 해야 할까요?

타직종 근무자 뿐만 아니라 휴직자의 경우에도 면허 신고를 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면허 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는 협회에서 대리 신고 불가한가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직접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했는데 면허신고시스템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보수교육 사이트는 협회 전산이어서 면허신고 시스템과 바로 연동 불가합니다. 면허신고시스템 연동까지는 2~5일(주말·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Dental LAB의 모든 것!

대한민국 대표 치과기자재 쇼핑몰 **DV mall!**
 기공 재료와 장비 구입, 세미나 등록까지 한 번에!
DV mall 만의 차별화된 멤버십 회원제로 더 큰 혜택을!



기공재료·장비
합리적인 쇼핑



멤버십 제도
5% 추가 할인



포인트 적립
적립권 BIG 혜택



세미나 등록
특별강의·할인

dvmall.co.kr